

하나님의 동역자

- 이영찬 목사

20 여년 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떠날 때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겪게 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화적응이나 언어습득, 풍토병이나 무지한 현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같은 선교사와의 관계입니다.'

선교지에 첫발을 내딛는 햇병아리 선교사였던 저에게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선교사끼리 서로 도와도 힘들 판에 어떻게 같은 편끼리 싸운단 말인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임을 아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끼리 반목하고 시기하며 견제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후에서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치밀한 전략이라는 것도 곧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지리멸렬(支離滅裂)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사탄의 무력화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역했던 10 여명의 선교사들이 자녀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시작하고 기도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곳에 사탄의 전략이 무력화되고 하나 됨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끼리 진정한 동역이 이루어지고 주일학교에서 말씀으로 양육 받았던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 됨의 열매였습니다.

얼마 전 버지니아에서 있었던 미주 이사회에 오맨 만에 참여했습니다. 이사회가 진행되는 동안 GP 선교회가 가진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로 모든 의사 진행이 일사천리로 처리되고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갑론을박 목소리를 높이고 격렬한 토론을 하기도 하지만 항상 마무리는 아름다웠습니다. 다투기보다는 격려와 사랑으로 서로를 포용하며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선교사들의 모임).

오래 전 한국에서 목사가 된 뒤 노회에 처음 참석했다가 큰 충격을 받고 '더 이상 노회는 갈 곳이

못된다'고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제가 속한 교단(PCA) 노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목사들이 모이는 곳에는 빈번하게 다툼이 일어나고 얼굴 붉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선교사들의 모임에는 끈끈한 전우애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동역자 의식과 동지 의식으로 강하게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GP 선교회의 사명 선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서로 협력(partnership)'입니다. GP 선교사들을 '협력하는 사람들'로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현지인들과도 협력하고 선교사들끼리 협력하고 교회와 협력하고 타선교회와 협력하는 아름다운 정신이 GP에 있음에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GP 이사회를 끝내고 예전에 알고 지냈던 젊은 집사 내외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과의사인 남편이 요즈음 한국 역사에 심취하여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서 작금(昨今) 한국에서 일어나는 정치 현실에 대해서 한쪽 편을 강하게 지지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한참 열변을 토하다가 저에게 '목사님은 어느 편입니까?' 묻는 것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가 아차 싶었던 것입니다. 오랜 만에 만난 상대방이 다른 편이면 어떻게 하나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들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이념, 인물에 대한 대화 주제가 첨예하게 대립 양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깊은 골을 만드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한 마디로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목사님은 어느 편입니까?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묻는 분들 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리스도파' 라고 대답합니다. 최근에 묵상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바울파와 성도를 양육했던 아볼로파, 그리고 초대 교회 지도자인 게바(베드로)파가 있었고, 심지어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고전 1:12). 자신의 영향 받음이나 취향에 따른 나뉘짐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나 선교지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으로 나뉘어져 다투고 싸웁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 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 사역이나 목회 사역 역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서만 가치가 있고 능력이 발휘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없음을 깨닫

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어느 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반문합니다(고전 1:13).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속의 은혜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이루신 구원 역사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편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one team 입니다. 선교사와 선교회와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 때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 17:18,21)

미국 독립 전쟁 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끌던 북군은 로버트리 장군의 남군에게 연패를 당해 전세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북군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했습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누구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되어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